

기독교 학문 활동은 한국 실정에서 가망이 있는가?

송인규

합동 신학 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목차

I.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뱅주의적 비전

시대적 배경

교회의 상황 어떤 반역

카이퍼의 공헌

미국 고등 교육에 대한 도전

초창기의 융성

세속화의 길

한 사회자의 도전

II. 최근 분석 철학계의 부흥

어떤 반역

어떤 반역

윌리엄 얼스톤의 모범

한국의 전망

분석과 비교

장애물 경주

새로운 세기를 위한 제언

상기한 질문에 무슨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매우 진취적인 기상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아님은 사실이다. 현재까지 한국 기독교의 분위기로 보건대, 필자의 판단으로는 기독교 학문 활동이 그렇게 쉽사리 장밋빛 전망을 획득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그 말이, 그런 활동의 무용성이나 비적실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번창의 가망성은 그리 높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 학문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지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실정에서 왜 기독교 학문 활동이 열심 있는 이들의 예상이나 기대만큼 받아들여 지지도 않고, 또 열매 맺기가 그렇게 힘든지를 숙지하면서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려는 것이다.

펼차는 이러한 주장과 설명을 전개하기 위해, 먼저 다른 시대 다른 여건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역사적 실례 - 혹은 당연한 문제점 - 를 살펴보고,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현 실정과 비교 혹은 대조하고자 한다. 먼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국가적·교회적 형편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신앙과 사상이 기독교 학문 활동에 던지는 의미를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장소를 바꾸어 고등 교육의 종교적·사상적·역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함과 동시에 기독교 학문 활동의 부흥을 열망하는 이들이 어떤 주장과 논지를 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분석 철학계에서 일어난 왕성한 기독교 학문 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의 사상과 신앙을 소개할 생각이다.

이 모든 서술과 소개는, 어찌하면 한국 실정에서 기독교 학문 활동이 더 활력 있게 진척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뱅주의적 비전

먼저 19세기 네덜란드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해서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6-1920)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기독교 정치가요, 언론가요, 교육가이자 사상가였다. 그는 국가가 인정하는 네덜란드 개혁 교회(Dutch Reformed Church)의 목회자로 출발하여 [1863년], 얼마간의 정치 활동후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1874년], 국가와 교회의 간섭이나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자유 대학교(Free University)의 실질적 설립자가 되었으며 [1880년], 후에는 수상직에까지 올랐대[1901년].

시대적 배경

카이퍼가 활동을 벌이던 19세기는 유럽 전체가 몇 가지 사건과 사상으로 복잡하게 뒤엉키던 때였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무엇보다도 1789년에 일어나 10년만에 종결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여파가 네덜란드까지도 뒤덮었다. 이제 유럽은 과거의 제도 [봉건주의에서 공화 체제로], 관습 [공동주의에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로], 개념 [자유, 권리, 정부 등의 말살을 목격하게 되었다. 1810년에 네덜란드는 프랑스 제국의 영토로 합병되었다가, 1814년 나폴레옹의 몰락과 더불어 그 이듬해에는 윌리엄 1세하에서 북방과 남방의 통합을 누리게 되었다. 1815년 이후 유럽에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몇 나라 군주들 중심의 회복 운동(restoration)이 성행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토양에 보수주의(conservatism) 입장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역시 자유주의(liberalism)의 세력이 그 고삐를 쥐고 있었다. 이 경향의 추종자들은 주로 중산층의 사람들로서 프랑스 혁명의 원리들 - 인간 및 인간 이성의 자율성, 종교로부터의 독립 등 - 을 온건한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르주아 계층의 정치적 패권을 꿈꾸었고, 기독교 정통 신앙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한 반발을 보였다. 그리하여 1848년에 네덜란드에는 4개의 정당 - 자유당(the Liberals), 보수당(the Conservatives), 가톨릭당(the Catholics), 기독교 역사주의당 (the Christian-Historicals) - 이 형성되어 있었다.¹⁾

사상적으로는, 그 당시 전 유럽 지역이 한편으로는 그 전 시대의 합리주의(rationalism)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낭만주의(romanticism)의 꿈틀거림에도 매료되어 있었다. 합리주의는 원래 경험주의(empiricism)에 대조되는 바 인간의 이성을 인식과 사유의 근본 원천으로 삼는

1) Frank Vanden Berg 저, 김기찬 역,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나비, 1991), pp. 88-89. 이 가운데 네 번째 정당은 소위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철학 이론이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든 경험이든 인간을 모든 판단과 행위의 최종 표준으로 삼는 계몽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지칭한다. 낭만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측면만이 대두되는 것에 반대하여, 이성에 대해서는 감정을, 지성에 대해서는 직관을, 틀에 박힌 사고에 대해서는 상상을 강조하는 사상적 경향인데, 문학·예술·철학·신학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통해 강력한 흐름을 조성했다. 낭만주의는 또 역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상당한 양의 고대 문서가 다시금 발간되었다. 그 이외에도 19세기에는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evolutionism), 포이어하흐(Ludwig Feuerbach, 1804-1872)의 종교 투사 이론(religious projectionism), 헉슬리(T. H. Huxley, 1825-1895)의 불가지론(agnosticism),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의 실증주의(positivism) 등 다양한 사조가 풍미했고, 네덜란드 또한 그토록 다양한 사상적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회의 상황

16세기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 형편을 보면, 재세례파의 일시적 득세 이후 정통 칼뱅주의가 신교의 주도적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이들은 네덜란드 개혁 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 NHK)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벨기에 신앙 고백(Belgic Confession)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Heidelberg Catechism)을 교리적 표준 문서로 받아들였다. 1571년에는 네덜란드의 칼뱅주의자들이 첫 번째의 전국 교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618-19년 사이에는 도르트 대회(Synod of Dordt)가 열려서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의 추종자들 - 보통 항변파 (Remonstrants)로 알려져 있음 - 을 개혁 교회로부터 축출했다. 네덜란드가 무역과 국제 활동에서 황금기를 맞았던 17세기 동안, 개혁 교회 역시 그 신앙적 뿌리를 확고히 내렸고 네덜란드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정통 교리를 수호하

려는 열심 때문에 열띤 논쟁이 야기되기도 했다.²⁾

18세기에는 칼뱅주의의 위상이 불안정해지고 그 영향력 또한 많이 약화되었다. 지식층의 사람들은 신학보다 계몽주의 사상에 매력을 느꼈고, 이신론(理神論, deism)까지 교회에 들어와 활개를 쳤다. 이러한 사상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개혁 교회는 종교적 교의에서 예전과 달리 크게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 식이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당시 화란 개혁 교회는 적어도 세 가지의 신학적 경향이 혼재해 있었다.³⁾ 첫째, 흐로닝겐 학파(Groningers)로서 쉐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1768-1834)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흐로닝겐 대학교의 젊은 신학자들에 의해 대변되던 신학 운동을 말한다. 이들은 따뜻한 감정(warm feelings)의 신학을 주창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대한 교육가로 공경했다. 둘째, 윤리 신학과(Ethical theology)로서 당시의 합리주의와 보수적 입장의 초자연주의 양자 모두에 대해 반발을 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체제(system)' 를 배척한다는 면에서는 키에르케고르(Søren A. Kierkegaard, 1813-1855)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윤리'란 도덕주의적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면의 심원한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셋째, 현대 신학과 (Modern theology)로서, 자연 과학에 대한 신뢰, 성경 문서에 대한 역사적 비평, 인류의 발전에 대한 집착, 진화론의 수납 등을 그 특징적 양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경향들은 정통 칼뱅주의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세기초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국소적이고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부흥(Réveil)을 맞보았다.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교회의 세속주의적·현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동이었다. 이러한 부흥의 경험은 말 그대로 교회와

2) 대표적인 예로, 보에티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와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1603-1669) 사이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구약 성경을 좀 더 교리적으로 다루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적·그리스도 중심적 접근을 시도했다(다. 로버트 갓프리, "네덜란드의 칼빈과 칼빈주의", 『칼빈이 서양에 미친 영향』, 스탠포드 리드 편저, 홍치모·이훈영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pp. 132-133).

3) L. Praamsam, *Let Christ Be King* (Jordan Station, Ontario: Paideia Press, 1985), pp. 32-38.

개인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었다. 부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은 정통적 신앙과 열정을 되찾았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교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부흥의 대표자가 하일라우메 흐룬 반 프린스터러(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였다. 그는 오랜 세월의 정치적 경력을 쌓았고, 특히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의 당수로서 교회와 국가의 개혁을 위하여 - 비록 고군분투하고는 있었지만 -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핵심인 계몽주의적 불신 사상을 비판하고, 공적 생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투쟁하던 중 카이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프린스터러의 꿈은 후에 카이퍼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퍼의 공헌

필자가 지금까지 카이퍼 당시의 시대적·교회적 환경을 묘사한 것은 결국 카이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또 카이퍼에 대해 갖는 궁극적 관심은 주로 그의 칼뱅주의적 신념에 관한 것이다. 카이퍼는 자신을 칼뱅주의의 신봉자로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칼뱅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그는 '칼뱅주의'가 단순히 사이비 종파적(sectarian) 명칭 - 가톨릭 국가에서 신교도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붙인 것 - 이거나, 편협한 예정론 신봉자란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적(confessional) 명칭도 아니고, 또 심지어 교파적(denominational) 명칭도 아니라고 한다.⁴⁾ 오히려 '칼뱅주의'는 학술적(scientific) 명칭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정치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4) 아브라함 카이퍼 지음, 박영남 옮김,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 pp. 24-26. 이 글은 카이퍼가 1898년 프린스턴 신학교의 스톤 강좌(Stone Lectures)에 초빙 받아 강연한 것을 책자화한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이야기되는 칼뱅주의란 종교개혁이 지향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서, 루터주의, 재침례교, 소시누스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철학적 의미의 경우에는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 칼뱅의 감화 아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유력히 부각된 사상 체계로 이해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미로서의 칼뱅주의는 입헌 정치로 국민의 자유를 보증한 정치 운동을 표시한다.⁵⁾

칼뱅주의는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생활 체계(life - system)로서, (i)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ii)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 (iii)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독특히 밝혀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주장이 가능하다.

칼뱅주의는 그 나름대로 하나의 독특한 신앙 형태(a form of religion)에 뿌리박고 있으며, 이 특정한 신앙 의식(religious consciousness)으로부터 우선 독특한 신학과 그 다음에 특정한 교회 제도가 발전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정치 및 사회 생활에 대하여, 도덕적 세계 질서(moral world-order)의 해석에 대하여, 자연과 은총 · 기독교와 세계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끝으로 예술과 과학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형태가 발전되었다. 이런 모든 생활 표현들(life-utterances) 가운데에서도 칼뱅주의는 항상 동일한 정체를 유지했는데, 이것은 이런 모든 발전 형태가 가장 심원한 생활 원리 (life-principle)로부터 동시적이면서도 자생적으로 발원했기 때문이다.⁶⁾

5) 전게서, p. 26. 인용문 가운데 어떤 부분은, 필자가 영문판에 기초해서 사역(私譯)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인용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6) 전게서, p. 30.

그런데 카이퍼가 기독교(칼뱅주의)를 하나의 포괄적인 생활 체계로 내세울 수 있게 해 준 기본적 확신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카이퍼가 기독교를 그토록 광범위한 생활 체계라고 역설 하는 것은 어떤 신념에 기초한 것인가? 세 가지 사항이 답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는 칼뱅의 기본 사상으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지배적 원리는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구원론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로서 전 우주 -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총망라하는 그 모든 영역과 왕국 - 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우주론적 성격의 것이다”⁷⁾

둘째,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이다. 영역 주권이란, 인간 사회의 각 영역 - 국가, 교회, 가족, 학교 - 은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께로 유래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영역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이 영역 주권의 원리를 카이퍼는 특히 학문적·교육적·과학적 활동에 적용했다. 셋째, 일반 은총(common grace)의 교리이다.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모든 이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악의 억제, 자연적 선의 증진, 예술적 기량이나 과학적 소양의 신장 등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 때문에 카이퍼는 포괄적인 생활 체계로서 기독교를 부르짖은 것인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적 학문 연구에 던지는 함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가령, 영역 주권의 가르침을 학문에 적용할 경우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7) 전제서, p. 107. [원저자의 강조]

8) Cf. 존 헐스트,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 고등 교육”, 『21 세기의 기독교와 타종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9), p. 660.

9)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science)”은 흔히 오늘날 이해하듯 자연 과학(natural science)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과학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학문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다 (cf. “내가 말하는 과학이란 전체로서의 인간학(human science)이며 …”,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p. 149).

과학⁹⁾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영역을 창조해 내는데, 그 영역에서는 진리되는 분이 주권자이시며, 그런 생활을 침범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학을 불명예스럽게 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구성하기까지 하는 것이다.¹⁰⁾

또 학문 활동에서 상태론자(常態論者, normalist)와 변태론자(變態論者, abnormalist) 사이의 쟁론¹¹⁾을 다루면서, 흔히 말하는 신앙과 과학 사이의 갈등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두 개의 과학 체계, 혹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두 개의 정밀한 과학 이론(scientific elaborations)이 각각의 믿음을 견지한 채 대립해 있는 것”¹²⁾이라 간주해야 한다는 카이퍼의 말도 여지없이 그의 학문적 통찰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카이퍼는 기독교 학문 활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의 칼뱅주의적 비전은 당위적으로 기독교적 학문 활동을 자극했고, 그가 그런 비전에 입각해 대학교를 설립했다는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한 신학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적실히 표현한다.

10) 존 헬스트, 전계서, p. 662.

11) “상태론”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타락의 사실과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반대로 “변태론”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가 타락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고려하는 신자의 입장이다. 만일 이것을 지질학에 적용시켜 본다면, 각각 균일론(均一論, uniformitarianism) - 지질의 변화는 부단히 균일하게 작용하는 힘에 의한 것이라는 학설 - 과 격변론(激變論, catastrophism) - 오늘날 지질의 형편은 과거에 일어난 모종의 격변에 의한 것이라는 이론 - 의 이론이 대두될 것이다.

12) 『칼빈주의』, p.175. 카이퍼의 이러한 신념은, 각 사람의 의식 - 중생한 이의 의식이든 중생하지 않은 이의 의식이든 - 이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제일 원리(primumverum) 노릇을 하고 또 그런 의식이 학문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된다(전계서, p. 180)는 전제주의적 입장(presuppositionalism)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cf. James D. Bratt,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pp. 17-18; George Marsden, “The State of Evangelical Christian Scholarship”, *Christian Scholar's Review*, Vol. XVII, No. 4 (June 1988), pp. 355-356; Peter S. Heslam, *Creating a Christian Worldview: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p. 183].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칼뱅주의란 전적 타락, 선택, 그리고 예정론을 의미한다. 이 점은 카이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교리들을 더 큰 원리들의 특별한 적용 결과로 보았다. 칼뱅주의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하나의 생활 체계로, 하나의 포괄적 안목 - 그 안목에 의거해 과학, 예술, 정치, 철학, 심리학 및 경제학을 조망하게 되는데 - 으로 여겼다.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독교 세계관이 - 또 오직 이런 종류만이 - 거칠고 냉혹한 상호 교류 가운데 자신에게 부과되는 학문 세계의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¹³⁾

미국의 고등 교육에 대한 도전

이제 장면을 바꾸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나라의 고등 교육이 발전해 온 종교적·교육적·역사적 궤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자. 이 부분에서 필자는 어느 한 개인을 부각시키든지 탐구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치 달리는 열차에서 창 밖의 풍경을 내다보듯이, 돌출한 봉우리과 가파른 골짜기들을 일별하고자 한다.

미국은 17세기에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되고 발전한 이래 독립전쟁(Revolutionary War, 1775-1783)을 전후로 하여 두 차례 - 1차는 1730년대에서 1740년대까지, 2차는 1800년에서 1835년 까지 - 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그 결과 회심한 젊은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기독교 대학들이 줄줄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남북전쟁(Civil War, 1861-1865) 이후 시대와 사조의 변천에 따라 서서히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급기야는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적 독특성과 사명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을 하는 일도 매우 드문 현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최근 미국의 고등 교육은 자체적 모순과

13) Bernard Ramm, *The Christian College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p. 92.

한계점을 노정(露呈)하고 있다. 한 기독교 사학자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일어나 기독교적 학문 연구의 절실성,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초창기의 응성

초창기 미국의 고등 교육은 곧 미국 기독교의 고등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세워진 대학들의 설립 배경을 보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는 바이다. 1636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문을 연 하버드 대학(Harvard College)은 매사추세츠주(州) 베이 구역(Bay Colony)의 청교도들이 그들의 목사와 교양인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했다.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한 지 6년 만에 대학을 세운 셈이었는데, 그 설립 목적인즉 “하나님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17:3),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모든 참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로서 근본에 두는 것”¹⁴⁾이었다. 그 후 1693년에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서 영국 국교회 신도들이 윌리엄과 매리 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의 설립 목적 역시 “훌륭한 목사의 양성”에 있었다. 7년 후인 1701년에는 코네티컷 주에서 조합교회 신도들(Congregationalists)¹⁵⁾에 의해 예일 대학(Yale College)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하버드 대학이 원래의 칼뱅주의적 입장에서 멀어지는데 대한 반동이었다.

14) William C. Ringenberg, *The Christian College: A History of Protestant Higher Education in America* (St. Paul, Minnesota: Christian University Press and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p. 38.

15) 조합주의(congregationalism)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찾는 한 지역의 회중이 회중에 의한 투표, 계약, 참여에 의해서 교회 사역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신념이다. 이런 형태의 교회 정치는 침례 교회와 여러 독립 교회들에서 발견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조합 교회가 하나의 독자적 교파로서 발전을 했다. 역사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기의 조합 교회는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었다. 하나는 영국에서의 핏박을 피해 1608년 네덜란드로 은거했다가 1620년에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한 분리주의 경향의 필그림들(Pilgrim Fathers)이 그 한 그룹이요, 1629년에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로드(William Laud, 1573-1645)의 핏박을 피해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이주한 비분리주의자들이 또 한 그룹이다. 이들은 신학적 갈등과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어 오다가 1961년도에 그리스도 연합 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라는 교단을 형성했다. 물론 조합 교회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이 교단과 독립적으로 존재

그 이후 계속되는 대학의 설립은 대각성 운동과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1746년에 시작된 뉴저지 대학(College of New Jersey) - 이는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전신인데 - 은 새빛¹⁶⁾ 장로교인들(New Lights Presbyterians)이 장래의 목사와 사회적 인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설립했다.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는 원래 킹즈 칼리지(Kings College)란 이름으로 뉴욕시에서 1754년에 출발했는데, 영국 국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초대 학장 역시 영국 국교의 목사인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 1696-1772)이었다. 필라델피아 대학(Philadelphia College) - 오늘날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 은 1755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필라델피아 대학 및 교육원(Philadelphia College and Academy)을 전신으로 출범하였다. 이 학교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 - 1790)까지 참여한 비기독교 대학이었지만, 조지 휘트필드의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자선 학교를 그 모체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 역시 식민 시대의 침례교인들에 의해 1765년에 세워졌는데, 그 전신은 로드아일랜드 대학(College of Rhode Island)이었다. 1766년에는 뉴저지의 뉴브룬스윅(New Brunswick)에 퀸즈 칼리지(Queens College)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의 전신으로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Dutch Reformed Church) 내의 신학적 분립¹⁷⁾ 때문에 생긴 학교였다. 다탘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은 1754년 코네티컷 주의 레바논에서, 엘리에서 휠락(Eleazar Wheelock, 1711-1779)이라

하는 작은 규모의 교회들도 있다 (Leland E. Wilshire, "Congregationalism", *Dictionary of Christianity in America*, pp. 309-311).

16) "새빛(New Lights)"이란 뉴잉글랜드 지방의 대각성 운동 당시 (1740-1743),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5-1770) 및 그가 일으킨 대부흥 현상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굳건한 태도로써 휘트필드의 부흥 운동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Harry S. Stout, "New Lights", *Dictionary of Christianity in America*, ed. Daniel G. Reid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0), p.816)

17)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1628년 이래 뉴욕과 뉴저지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생활에 적응하는

는 인디안 원주민 선교사에 의해 출발했는데, 그 전신은 인디안 자선 학교(Indian Charity School)였다.

그 이후에도 많은 대학들이 기독교 신앙에 자극을 받아 설립되었는데, 그러한 자극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손꼽을 수 있다. 대각성 운동이 한창이던 1820년부터 1860년까지 40년 동안 복음주의자들이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해 아팔라치아 산맥 서편의 지역에만 세운 대학만도 150개가 넘는다고 한다.¹⁸⁾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통계를 보면, 교파와 직접 연관된 대학교나 대학은 129개에 달했는데, 이들을 교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장로 교회	49 개교
감리 교회	34 개교
침례 교회	25 개교
조합 교회	21 개교

세속화의 길

미국의 대학들이 초창기에 고수했던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세계관적 전통을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였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일탈 - 이는 유니테리언

과정에서 한편은 네덜란드식의 관습을 유지하고 암스테르담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를 희망하는 수구파(守舊派, conferentie)와 미국에 독립 노회를 조직하고 목회자 교육 역시 네덜란드로 보내기보다는 미국에서 시키기를 바라는 혁신파(革新派, coetus)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후자가 추진하여 세운 대학이 바로 쿤즈 칼리지로서 후에는 럿거스 대학(Rutgers College)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lton J. Bruins, "Reformed Church in America", *Dictionary of Christianity in America*, p. 985).

18) Robert D. Linder, "Division and Unity: The Paradox of Christianity in America", *Dictionary of Christianity in America*, p. 10.

19) Arthur F. Holmes,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p. 19.

주의(Unitarianism)²⁰⁾를 수용한 일이었는데²¹⁾ - 이 심지어 그 훨씬 전부터 목격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도 19세기말에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 비록 그 확산 속도는 개개 학교에 따라 달랐지만 - 세속화의 길을 걸었다.

무엇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가며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었는가? 도대체 어떤 요인이 작용했길래, 그토록 충실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학들이 결국에는 바로 그 신앙 정신을 등지게 되었는가? 그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대별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대학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인으로 두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1862년의 모릴 법안(Morrill Land Grant Act)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인 저스틴 모릴(Justin S. Morrill)에 의해 제안된 법안으로서, 국가 소유의 땅을 주(州) 정부에 제공하여 대학 내에 과학, 농업, 산업 및 군사학 분야의 프로그램 설립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 사회가 산업화에 착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가의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 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이었다. 모릴 법안의 발효는 대학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²²⁾ 우선, 지금까지는 대학이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국가와 주 정부의 관할하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학교의 소유, 감독 및 재정 지원 등의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었고, 정교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의 원칙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과거 교회 관련 학교들처럼 특정 종교의 견해를 견지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게 되었다. 또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변화가 찾아왔는데, 과거에는 주로

20) 유니테리언자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단호히 배척한다.

21) 예를 들어, 18세기에 하버드 대학의 학장이던 에드워드 홀리요르크(Edward Holyoke, 1737-1769)는 유니테리언으로서의 신앙적 경향을 표명했고, 또 19세기 초에는 유니테리언 입장의 헨리 웨어(Henry Ware)를 신학 교수로 임명했으며 유니테리언이나 다른 없는 사무엘 웨버(Samuel Webber) 목사를 총장으로 선출했다(William C. Ringenberg, 전제서, p. 127).

22) Arthur J. De Jong, *Reclaiming a Mission: New Direction for the Church-Related Colle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pp. 44-45.

교양 교육(liberal arts)과 전인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제는 산업과 농업 등 응용 과학을 중요시하고 주로 전공과 관련한 특수 분야의 지식 습득에 정열을 쏟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고등 교육에 대한 신앙적 접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고, 끝내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어 놓았다.

또 한 가지 사회적 요인은 대학 사회의 팽창에 관한 것이다. 이 팽창은 대학생의 수효, 구성원의 다양성, 재정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 대학 인구의 신속한 증가는 국가 인구와의 증가 비율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1870년	1900년
국가 인구	40,000,000명	76,000,000명
대학생 인구	52,000명	238,000명

국가 인구는 30년 동안 약 2배가 되었지만, 대학생 인구는 무려 5배 가량으로 늘어났다.²³⁾ 또, 1870년에는 19-21세 사이의 연령층 가운데 1.7%만이 대학에 있었으나 1930년에는 그 비율이 팔복할만큼 신장하여 12.4%에 달했던 것이다.²⁴⁾

대학의 구성원이 다양해진 것 역시 대학의 팽창에 기여했다. 남북 전쟁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여러 기독교 교파들과 개인들은 혁신을 위한 대학들을 설립했다. 또 여성만을 위한 대학들 또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들은 점점 남녀 공학의 교육 체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자 미국에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는데, 그들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전쟁 이전의 이민자들

23) Mark A. Noll, "Introduction: Christian Colleges, Christian Worldviews, and an Invitation to Research", in *The Christian College: A History of Protestant Higher Education in America*, William C. Ringenberg, p. 25.

24) 전게서, 동일면.

은 주로 영국과 독일 출신이었으나, 전쟁 이후에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유대인들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또 개신교의 경우에도 스칸디나비아의 루터파, 네덜란드의 개혁파, 독일의 형제 교회 (Brethrens)와 메노나이트 등 보통 다양한 것이 아니었다.²⁵⁾

대학의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 - 이 또한 대학 사회의 팽창에 기여했다 - 은, 남북 전쟁 이후의 경제 발전에 힘입어 신흥 재벌로 부상한 이들이 대학에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회사한 때문이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여러 대학들이 새로이 건립되었다.²⁶⁾

기부자	사업 내역	기부금	설립 학교	설립 연도
에즈라 코넬	전신국 건설 및 은행업	50만불	코넬 대학교	1865년
존스 홉킨스	은행가 및 철도 회사 투자가	350만불	존스홉킨스 대학교	1876년
코넬리아스	밴더빌트 증기선 및 철도업	100만불	밴더빌트 대학교	1873년
리랜드 스텐포드	철도업	2000만불	스텐포드 대학교	1885년
제임스 듀크	담배업	1억불의 신탁 기금 에서 생기는 수익	듀크 대학교	1859년
존 록펠러	석유업	4800만불	시카고 대학교	1890년

또 하버드 대학교 하나만 보더라도 1869년에는 기부 받은 금액이 250만 달러이었지만, 1909년에는 2000만 달러로 경총 뛰었다.²⁷⁾

이렇게 대학 사회가 팽창함에 따라 구성원의 복잡성, 선택 과목의 다양화, 기술 및 과학 과목의 전문화, 연구 위주의 학문적 분위기, 교수의 전문가적 자격 선호, 경쟁적 풍토 등 여러 경향과 특징들이 대두되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은 대학 교육의 기독교적 특이성과 가치관을 좀먹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둘째, 대학 교육의 세속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상적 요

25) William C. Ringenberg, 전계서, pp. 100-102.

26) 이 표는 Mark A. Noll, "Introduction", p.25에 나타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27) 전계서, 동일면.

인이다. 남북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초자연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전쟁 이후 고등 교육계의 분위기는 서서히 기독교 유신론의 핵심적 조항들을 포기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우선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빙성의 상실을 대표적 현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고등 비평(higher criticism)을 도입한 성경 해석 방식에 현저히 나타나는 바인데, 주로 독일²⁸⁾의 학자들 -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 리츨(Albrecht Ritschl, 1822-1889),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 - 에 의해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고등 비평이란 성경 역시 다른 문서와 똑같이 문서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런 방법론이 성경은 기껏해야 인간의 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제와 어우러지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파괴적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또 다윈의 진화론 역시 미국 고등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다윈의 대표작 『종의 기원』(1859)이 발표되고 난 직후에는, 식자층으로부터의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인 기미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나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많은 이들이 진화론을 수용했고 또 그것을 기독교 신앙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진화론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생물학적인 이론보다도 오히려 자연 과학 활동을 하는 이의 태도에 대해,²⁹⁾ 또 온

28) 미국의 고등 교육이 독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독일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은 때문이었다. 1900년 한 해의 통계만 보더라도 700명의 학자 가운데 300명이 독일에서 공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cf. Mark A. Noll, 전계서, p. 26). 또 독일에 유학한 이들의 수효가 남북 전쟁(1861) 전야까지는 300명이었는데 제1차 세계 대전(1914)까지는 10,000명에 달했다. (William C. Ringenberg, 전계서, p. 105). 독일에서의 학문 연마가 미국의 고등 교육에 미친 영향은 상기한 바 신학적 자유주의 이외에도, 연구(research)에 대한 강조, 학생들의 자유와 자율성, 인본주의적 교육 방침 등이라고 한다 (George M.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184)

29) 즉, 똑같이 데이터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 자세로 하느냐 아니면 불가지론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미치는 차이는 지대한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³⁰⁾ 였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고등 교육의 세속화를 불러온 또 하나의 사상적 조류로서, 20세기 전반에 등장한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검증될 수 있는 명제나 대상만을 합당한 지식의 내용으로 인정했는데, 이로써 종교, 윤리, 예술에 관한 진술은 아예 지식과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과학적 방법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 독선적 입장을 '과학주의(scientism)' 라고도 부르는데, 향후 30-40년 간 인식론적 제왕 노릇을 했다.

이와 같은 사상들이 직·간접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함에 따라 기독교 유신론은 더 이상 삶과 학문을 일관성 있게 엮어 주는 통합적 원리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했고, 그러한 사상적 공백(아니면 혼란) 상태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대체하게 되었다.

한 사학자의 도전

조지 마스덴(George M. Marsden, 1939 -)은 미국의 역사를 종교적 각도에서 파헤쳐 온 유명한 사학자이다. 그는 처음으로 1980년에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를 써서 근본주의에 대한 권위자로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에도 1987년에 『근본주의를 개혁함(Reforming Fundamentalism)』, 1991년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등의 수준급 저술을 내놓았다. 특히 1994년에 쓴 『미국 대학의 혼(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을 통해서, 미국의 고등 교육이 - 왜 그리고 어떻게 하여 - 개신교적 뿌리에서 출발

30) 이것은 다윈주의(Darwinism)가 생물학적 이론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으로 자리잡은 결과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를 언급할 수 있을 터인데, 그에 의하면, "인류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최적의 길은 신적 계시의 탐구에 있지 않고 적자 생존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라고 한다"(Mark A. Noll, "Introduction", p. 28).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무신앙(nonbelief)의 풍토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의문과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1997년에는 『기독교적 학문 활동이 그토록 황당한 것은 아니다(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³¹⁾를 출간했다. 그는 오랫동안 캘빈 대학(Calvin College)과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에서 가르쳤고, 현재는 노트르담 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마스테인이 이런 글들을 통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매우 간단한 내용이다. 즉, 오늘날 미국 대학의 학문적 풍토에서 어떤 종류의 관점이든 다 허용되면서 왜 유독 기독교적 관점 - 또 기타 종교들의 관점도 마찬가지인데 - 만큼은 배척을 받아야 하는냐는 것이다. 그가 더욱 기막혀 하는 것은 미국의 고등 교육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기독교적 희망과 비전에 의해 출발했고, 현재에도 학자들 가운데 활동적인 신앙인들이 꽤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학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우선 왜 사람들이 학문 활동에 기독교적 관점을 도입하기 꺼려하는지(혹은 그런 도입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소개한다.³²⁾

첫째,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학문 활동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계몽주의적 발상의 잔재일 뿐이요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조에는 맞지가 않는다. 현금(現今)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과 달리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의 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지적인 근거를 내세워 기독교적 관점

31) 최근 (2000년 2월18일) 한국 IVP에서는 이 책을 「기독교적 학문 연구@현대 학문 세계」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이 다른 제목으로 번역된 줄을 알면서도 필자가 구태여 이렇게 사역(私譯)을 시도한 이유는, 이 책자의 제목이 뜻한 바 원래의 취지를 밝히고자 함이다.

32) 이 이유들은 George M.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의 맨 마지막 장인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pp. 429-444)" 에 수록되어 있다.

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순전히 자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의 명령을 다시 불러 올리겠다는 전근대적 처사로서, 배척받아 마땅하다.

둘째, 또 어떤 이들은 다원주의(pluralism)의 이유를 들어 학문에서 기독교적 관점의 도입을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는 언뜻 보기에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다원주의적 입장이라면 여러 가지 관점 - 기독교적 관점을 포함하여 - 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반대는 기독교적 관점의 소유자들이 대체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생활 양식·가족·성에 관한 견해에서는 캠퍼스 내 주도적 세력가들의 감정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말로는 관용(tolerance)·다원주의·다양성을 주창하면서도 학문 활동에서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간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캠퍼스에 등장하는 기독교적 관점 등 다양한 견해 차이는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편협한 태도나 배제의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적 교양(civility)에 관한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이들은 학문적 자유라는 명목을 내걸어 학문에 관한 신앙적 관점을 막으려고 한다. 학문적 자유는 고등 교육 제도의 정초(定礎)가 되는 신념이고 또 그래야 하지만, 문제는 종교적 보수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를 혼동하여 전자나 후자나 모두 학문적 자유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 있다. 학문적 자유와 종교 사이의 관계는 시대의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처음 대학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기독교가 제도적으로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자유가 혹 종교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았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대학 교육은 그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즉 오늘날에는 어떤 교단이나 기독교 단체도 고등 교육 기관의 학문적 자유를 얼마나 큰 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문적 자유라는 근본 방침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학문 활동

이 그런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넷째, 또 다른 이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는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어떤 한 시점에서조차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그런 식의 해석이 맞아 들어간 적은 없다. 정부와 제도화된 종교 사이의 관계는 결코 정교 분리라는 전천후적(?) 공식에 의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헌법 제1조의 수정안(First Amendment)에 의하면, 정부 편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공적으로 확립시키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적 견해의 확립 금지가 신앙의 공적 표현을 모두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신앙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므로 헌법 제1조 수정안의 후반부 - 거기에는 정부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에 저촉된다. 따라서 종교적 견해의 비확립은 다양한 종교의 신앙적 표현을 제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권장함으로써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위에서 학문적 자유를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의 배경 이해가 요구된다. 1960대 이후 개신교의 주류 교단은 종교적 제도 확립의 면에서 보자면, 거의 몰락의 수준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개신교도 전체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하나의 특정 종교를 두둔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고등 교육의 영역에서는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학문 활동에 기독교적 관점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결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다시금 들먹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학문 활동은 다른 이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야 한단 말인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농작물의 병인을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일반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실험 과정을 채택해야 하고, 임진왜란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무나 정도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학 과목들에 있

어서조차 기독교 신앙이 모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³³⁾

첫째, 기독교 신앙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학문 연구의 동기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다. 둘째, 자신의 학문 연구에 관계된 응용 분야의 선택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도움을 주기도 - 예를 들어, 타인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특정 응용 분야를 정하는 식으로 - 한다. 셋째, 이런 동기들은 자신의 세부적 전문 분야(sub-field)를 계발하도록 하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도 한다. 넷째, 공학자가 어쩌다 자신의 학문 세계가 갖는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 믿음은 자기 분야 및 그 분야가 갖는 가정들(assumptions)을 바라보는 시각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사회 과학이나 인문학의 분야에서는 위의 네 가지 항목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가 훨씬 더 의미 심장하게 부각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 심장성이 항상 명시적이고 뚜렷하고 기독교적 독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리스도인 학자가 취급하고자 하는 주제의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마스덴은 기독교적 관점이 학문 활동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반대자와 지지자 쌍방 모두에 대해 커다란 도전을 하고 있다.

(계속)

33) George M. Marsden,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 63-64. 물론 마스덴은 기독교적 학문 연구의 독특성이나 실례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cf. 전제서, pp. 66-108, 113-119).